

# 논술고사 문제지 (오전)

(인문계열) : 120분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자(일반)
수험번호		성명	

■ 일반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 1]이 70점, [문항 2]가 30점입니다.
2. 각 문항의 답안은 반드시 해당 답란에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작성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시오.
4.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시오(연필, 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5.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시오(수정액, 수정 테이프, 지우개 사용 가능).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오.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4. 논술문의 형식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쓰시오.
5.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 논술고사 (인문계열)

## ■ 문항 1 [70점]

[문항 1 - 가] (가)를 요약하시오. (300±50자, 20점)

[문항 1 - 나] A시에서는 지역문화 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다음의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조건>에 맞게 논술하라. (800±80자, 50점)

< 다 음 >

<b>전문가 의견 중심</b>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방안을 수립한다.	<b>시민 의견 중심</b> 시민 전체의 의견을 종합해 방안을 수립한다.
--	---

< 조 건 >

1.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
2. 둘 중에 하나만 택하여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 두 가지를 (가)~(마)에서 찾아 제시하되, 제시문을 두 개 이상을 활용할 것.
3.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것.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제 시 문 >

**(가)**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에서 일반인보다 뛰어난 존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높은 지적 능력, 풍부한 경험,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 왔고, 대중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 왔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의 권위는 근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그 자리를 대중들이 차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전문성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융합되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인쇄문화의 등장, 분업체계의 정착 과정에서 이러한 공동 작업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인쇄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신만의 개별공간에서 생산해 낸 지식을 책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분업체계가 공고해질수록 전문적인 역량이 강조되어 전문가들은 점점 더 폐쇄된 자신의 영역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처럼 개별화, 폐쇄화되어 협력을 이루지 못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해 사회는 더 이상 신뢰를 보내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개별 전문가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의 대중화와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전문가와 대중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대 이후 진행된 교육의 대중화로 모든 이들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자 더 이상 전문가와 대중의 사고능력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전문가의 권위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편 21세기에 나타난 정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대중 스스로가 폭넓은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의 강의 혹은 저서를 통해 전달된 지식이 대중의 인터넷 검색에 의해 실시간으로 타당성을 검증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전문가들이 생산해 낸 전문지식보다 네트워크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지식에 대중들이 더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상에 산재한 수많은 지식과 정보의 수집 가능성 때문에 이제 특정한 지식 하나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정보 혁명이 전문가의 전문성에 위기를 가져왔지만 전문가들이 독점하던 지식과 정보가 대중들의 것이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더욱이 대중에 기반을 둔, 소위 집단지성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지식의 생산과 유통 양상을 보이며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권위 하락과 지식의 대중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많다. 상황에 따라 손쉽게 의견을 바꾸는 무책임한 아마추어들에게 전문가가 밀려나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식의 진위를 분별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신문, 방송 등의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아마추어 블로그와 온라인 뉴스가 점차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급 정보에 대해 기존의 전문적 미디어의 지배력이 줄어들 것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에 대한 전문적 미디어의 검증 기능이 상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논술고사 (인문계열)

집단지성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감정에 휩쓸린 나머지 비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도 존재한다. 집단지성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생산, 유통시켜 감성적 율령 현상을 유발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집단지성이 대중영합주의에 휩쓸릴 경우, 개개인의 의견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사생활의 영역을 축소하며 여론을 획일화하여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시킬 가능성이 있다.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제한되고 다양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며 대중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등 집단주의에 매몰된다면 집단의 지혜는 사라지고 ‘어리석은 대중’의 광기가 발생할 수 있다.

**(나)** 권력은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에 따라 합법적 권력, 보상 권력, 강제 권력, 전문 권력, 준거 권력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 중에서 전문 권력은 한 개인의 지식, 기능, 직무상의 정보와 경험 등에서 나오는 권력이다. 회계사, 변호사처럼 권력 행사자가 가진 정보가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전문 권력이 행사된다.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깊고도 넓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중요한 의제가 주어졌을 때 전문지식에 입각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1961년 4월 17일 새벽, 여덟 척의 미군 함정이 B-26 폭격기의 호위를 받으며 쿠바 남쪽 해안 피그만(Pig's Bay)을 향해 출항한다. 함정에는 1,400명의 쿠바 망명자로 구성된 상륙부대가 타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쿠바를 기습하여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함정의 대부분은 쿠바 연안의 암초에 걸렸고, B-26은 쿠바 공군의 전투기에 격추당하고 만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상륙을 감행한 부대원들 중 100명은 중무장한 쿠바 경비대에 의해 사살되고, 나머지 부대원들 중 대부분은 포로로 잡혔다. 미국의 피그만 침공이 실패로 돌아간 후 쿠바는 미국에게 내정 간섭의 죄를 물으며 포로교환의 조건으로 거액의 보상비를 요구했고, 미국은 쿠바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피그만 침사 이후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은 더욱 공고해졌고, 이 사건은 미국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가장 우스꽝스러운 실패로 기록된다.

1961년 당시 케네디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두뇌집단이였다. 하버드대 교수들과 포드 자동차 사장, 록펠러 재단 이사장 등 당대의 쟁쟁한 인재들이 모두 장관이나 참모로 기용됐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졸하고 수치스러운 군사작전을 승인했고, 참담히 실패했다. 케네디와 그의 엘리트 참모들은 어떻게 그런 엉터리 같은 계획을 만들어냈을까? 애초부터 문제점과 허점이 많았던 이 계획에 어찌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을까? 미국의 심리학자 제니스(J. Janis)는 소규모 그룹에서 발생하는 획일적 사고의 폐해라는 관점에서 이를 설명했다. 소규모의 결속력이 높은 그룹에서는 이의제기를 억제하고 쉽게 합의를 이루

리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라고 지적한다. 만장일치는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성취감을 선사한다. 하지만 만장일치의 감동을 억지로 끌어낼 일은 아니다. 언제라도 피그만 침사는 일어날 수 있다.  
고등학교 『기업과 경영』 발췌, 수정

**(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주위 환경에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존경과 인기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주변을 관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견과 행동 양식이 우세한지를 판단해 그에 따라 의견을 갖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론은 ‘획일화’의 압력의 산물이다. 이는 독일의 학자 노엘레-노이만(Elisabeth Noelle-Neumann)이 제시한 ‘침묵의 나선 이론’의 핵심적 주장이다.

노엘레-노이만은 우리에게 눈(시각), 귀(소리), 혀(맛), 코(냄새), 피부(접촉) 이외에 ‘제 6의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감각이라고 설명한다. 즉, 사람들은 소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커지고 어떤 의견이 줄어드는지를 알기 위해 환경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것이다. 이때, 침묵의 나선이란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유보적 태도를 취하며 침묵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노엘레-노이만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립의 두려움 때문에 침묵의 소용돌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예산 편성에서 복지 확대와 재정 안정 중 어느 쪽을 중시해야 하는가를 두고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인터넷 상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자신의 의견이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지만, 다수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지닌 사람은 다수의 견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선거에서 급격한 표 율령 현상이 나타나는 것 역시 종종 침묵의 나선 이론을 통해 설명된다.

침묵의 나선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익명의 대중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비판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은 개인을 침묵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대중 매체에 의해 지배적인 것으로 표현된 의견에 더욱 동조하고 그렇지 않은 의견에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매체가 여론을 전달하는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론이란 것이 다수의 의견을 항상 객관적으로 반영하기는커녕 어쩌면 허깨비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 발췌, 수정

## 논술고사 (인문계열)

(라) 브뤼셀대학교 행동생태학 부서 연구원들은 먹이를 찾아 나선 개미 무리가 어떻게 최단 경로를 찾아내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을 실시했다. 개미 무리와 먹이 사이에 다리를 설치하고 이 다리가 두 갈래의 굵은 길로 갈라지도록 만들었는데 한쪽 경로가 다른 쪽 경로보다 두 배 더 긴 것이었다. 관찰 결과 먹이를 찾아 나선 첫 번째 개미는 두 길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지만 최종적으로 개미 무리들은 몇 분 안에 최단 경로를 찾아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이는 개미들이 호르몬을 통한 고유의 표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고 강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개미가 개체로서보다 무리로서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곤충학자 휠러(W. Wheeler)는 이미 1910년에 출간한 『개미: 그들의 구조, 발달, 행동』에서 개체로는 보잘것없는 개미가 집단을 이루어 협력할 때에 복잡하고도 거대한 개미집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결과 휠러는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이는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이 협력할 때에 한 개인의 지적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문제 해결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원용하여 사회학자 레비(P. Levy)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지성 개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오늘날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개방형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이다. 위키피디아는 참여자 모두에게 편집권이 있고, 다수에 의해 수정되며, 매일 매일 업데이트되는 ‘살아 있는 백과사전’이다. 2001년 위키피디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이 무료 백과사전에 들어 있는 단어는 겨우 31개였지만 그 후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2009년에는 1,000만 단어를 넘어섰다. 그리고 사이트 이용자 수에서도 이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다.

위키피디아적 집단지성의 장점은 그 결과물의 방대함이나 신속성, 정확성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참여와 공유에 의한 지식생산이라는 과정 그 자체이다. 위키피디아는 이해와 입장이 다른 수많은 참여자가 서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정하고, 다시 그것을 소비하며 개별 지식과 개념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메워가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생산, 축적하고 진화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교육』 발췌, 수정

(마) 오늘날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광범위하게 정보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중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폭넓게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는 하락하고 그들의 지식은 쉽게 의심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상 현대사회에서 전문가들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합리적 판단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텐거(I. Stenger)는 지성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식 창조인데 지식 창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축적된 지식을 지니고 이를 활용할 능력을 보유한 소위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현상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문제제기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전제된다면 전문가의 가치는 오히려 이전 시대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대중이 생산하는 지식과 전문가들이 생산하는 지식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버크(P. Burke)는 대중의 지식과 전문가의 지식을 구분한다. 우선 그는 대중이 생산하는 지식은 개인들의 체험, 경험에 주로 근거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드러운 지식’ 혹은 ‘약한 지식’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전문가들이 생산하는 지식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수집한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다 깊이 있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버크는 주장한다. 이는 예컨대, 대중이 생산한 지식이 길 찾거나 쇼핑하기 등 일상생활의 소소한 부분에서 유용한 반면, 전문가들이 생산한 지식은 국가전략과 정책 수립 등, 보다 거시적인 부분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식생산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전문가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공정한 검토와 합리적 판단이 요구될 경우가 그러하다.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 기후변화에 따라 정부가 검토 중인 온실가스 배출 제한 및 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정책에 대해 판단하는 반면, 전문가 집단은 이들과 달리 전문지식에 입각해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조언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는 전문가들이 정책 수립과 결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논술고사 (인문계열)

## ■ 문항 2 [30점]

[논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밑줄 친 의견을 반박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유리 천장’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600±100자,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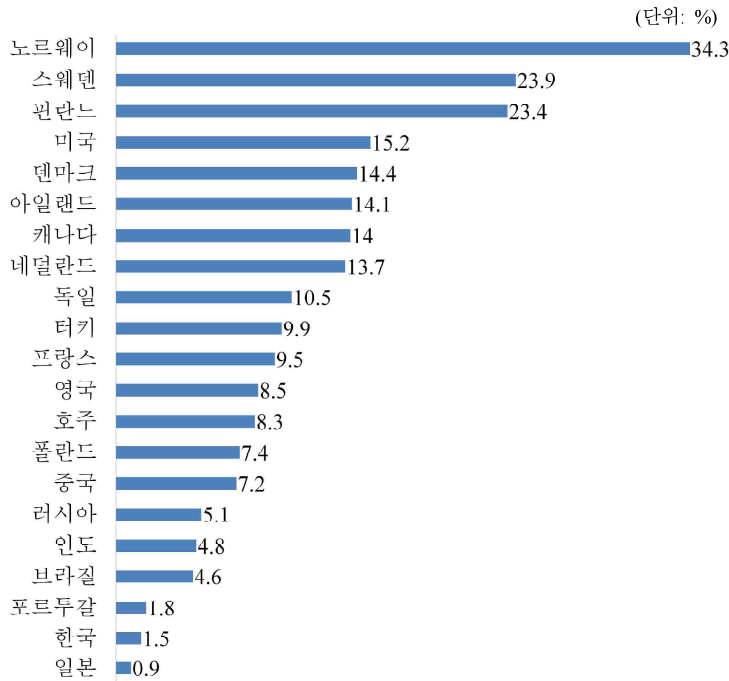
< 다 음 >

최근 들어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인력의 활용은 고령화 및 잠재성장을 하락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줄어드는 소위 ‘유리 천장(glass ceiling)’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유리 천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라는 의미로, 직장 내에서 여성들의 고위직 진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리 천장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발췌, 수정

< 자 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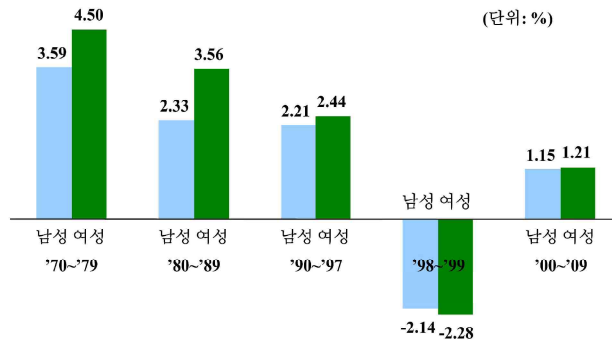
(가) 국가별 여성임원 비율



자료: 『젠더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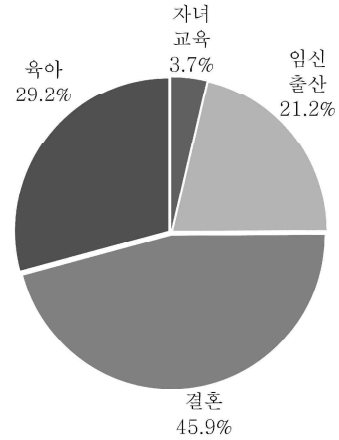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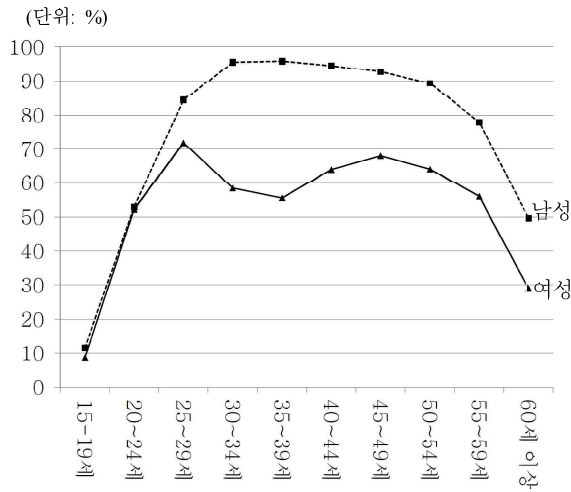
# 논술고사 (인문계열)

(나) 기간별 연평균 고용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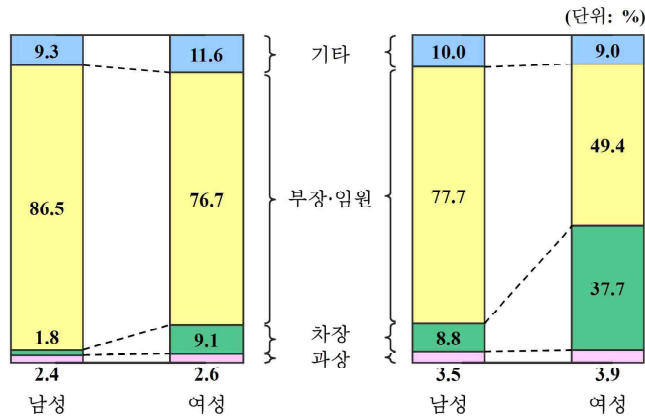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다)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자료: 통계청

(라)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어디까지 승진하고 싶으십니까?

자료: 『사회연구』

귀하께서는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논술고사 (인문계열)

(마) 민간/공공 부문의 여성근로자 및 여성임원 비율

(단위: %)

구분		2005년	2007년	2009년
민간부문	여성근로자 비율	28.8	28.9	29.3
	여성임원 비율	3.9	4.0	4.7
공공부문	여성근로자 비율	27.4	27.9	28.1
	여성임원 비율	2.2	3.3	2.7

자료: 『여성경제연구』

주1) 1,229개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주2) 여성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여성근로자의 비중이고, 여성임원 비율은 전체 임원 중에서 여성임원의 비중임.

(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미적용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의 변화

기간	적용 기업		미적용 기업	
	기업수	변화분	기업수	변화분
2005년 3월 → 2007년 2월	121개	0.75%P 증가	1,108개	0.10%P 증가
2007년 3월 → 2009년 2월	273개	0.60%P 증가	956개	0.53%P 증가

자료: 『여성경제연구』

주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에 있어 차별이 일정 수준까지 감소하도록 차별받는 그룹을 잠정적으로 우대해 주는 조치를 말함.

주2) 2005년 3월 → 2007년 2월 기간은 종업원수 기준 1,000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었고,

2007년 3월 → 2009년 2월 기간은 종업원수 기준 500인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었음.





